

[대정중학교 학생과 함께한 GIHAS 세계중요 농업유산
제주 발담 훼손 실태 조사에 기반한 보전 연구제안서]

제안자	소속	대정중학교	협력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계획연구실 연구진 (손용훈, 김도은, 박세은, 오영석)
	이름	대정중학교 1학년 일동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주 발담의 가치

제주 발담은 제주의 독특한 농업·경관·생태를 형성해온 대표적인 문화경관 요소로, 세계중요 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지닌 자원임.

2) 훼손의 심각성

그러나 최근 개발 압력, 관리 소홀, 지역사회의 관심 저하로 인해 발담이 물리적(붕괴·철거), 기능적(방풍·토사유출 방지 능력 저하), 경관적(전통 경관 훼손, 폐기물 방치) 측면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음. 이러한 훼손은 단순히 경관 파괴를 넘어 지역 정체성과 생태계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함.

3) 미래세대의 인식 필요성

2025 7월 14일~17일 '2025 동문과 함께 하는 제주 SNU공헌단'에서 대정중학교 학생 참여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훼손 현장을 직접 관찰·기록하는 경험이 발담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주도 보전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발담 보전을 위한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와 주민·청소년 참여 기반의 교육·실천 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제안 주체 및 활동 내용

1) 주체: 제주 대정중학교 1학년 학생들

2) 협력자: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계획연구실 연구진 (손용훈, 김도은, 박세은, 오영석)

3) 협력 내용: 지도·기술지원: 앱 사용법 교육, 자료 정리 지원 등

4) 활동 과정

(1) 사전 교육: 발담의 가치와 훼손 유형 학습

(2) 현장 조사: 램블러 앱으로 훼손 지점 기록(위치·사진·메모)

(3) 소감 작성: 발담 보전에 대한 필요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인식

(4) 조사 결과 공유: 자료 정리 및 홍보자료 작성

3. 제안 연구 과제

1) 연구 목표:

제주 발담의 훼손 현황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내용

(1) 제주 전역 발달 훼손 구간 체계적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금까지의 발달 조사는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장기적 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발달 훼손 구간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훼손 유형별·공간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리와 복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 갱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연구자·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음.

(2) 훼손 유형별(물리적·기능적·경관적) 원인 분석과 우선 복원 전략 수립

발달 훼손은 물리적 훼손(붕괴·철거), 기능적 훼손(방풍·토사유출 방지 능력 저하), 경관적 훼손(전통 경관 단절)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각 유형은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이 필요함. 예를 들어 물리적 훼손은 즉각적인 복원 사업이 요구되며, 기능적 훼손은 관리 기술 강화와 농업 환경 개선이 필요함. 경관적 훼손은 개발 행위 관리와 제도적 보안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음.

(3) 주민·학생 참여형 보전 모델 개발(학교 교육 연계 가능성 검토)

발달 보전은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의 인식과 참여 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따라서 주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발달 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청소년이 훼손 구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간단한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유산을 관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학생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지켜나가는 경험을 통해 주인의식을 형성할 수 있음. 이러한 보전 모델은 장기적으로 제주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도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음.

(4) 디지털 앱·GIS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달 보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 제안에서는 램블러 앱과 GIS 기술을 활용하여 발달 훼손 현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주민, 학생, 연구자, 행정기관이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훼손 추세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또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운영될 경우,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발달 보전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제주연구원이 주도하는 디지털 기반 관리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

3) 연구 주체: 제주연구원 중심 수행, 향후 도내 학교·연구기관 협력 가능

4. 기대효과

1) 현장성 있는 연구 과제 발굴

본 제안은 제주 발달 훼손 현황을 청소년의 관찰과 기록이라는 독특한 출발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큼. 지금까지 발달 관련 연구들은 전문가나 행정 주도의 조사에 치중해왔고, 주민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드물었음.

본 연구 제안이 실제로 수행된다면, 발달 훼손 구간과 유형을 정량적·체계적으로 기록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훼손 추세를 분석하거나 원

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됨. 특히 램블러 앱을 기반으로 한 위치 데이터와 사진 자료, 그리고 학생들의 현장 체험 기록은 학문적으로도 새로운 방법론적 가능성을 보여 줌. 발담이라는 전통 경관 요소가 단순히 문화재 보존 차원이 아니라, GIS·디지털 기술과 접목되어 연구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혁신적인 시도가 됨. 따라서 본 제안은 학술적 연구가 현장성과 교육적 경험을 동시에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미래세대 교육 효과

발담 훼손 조사는 단순한 답사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됨. 학생들은 발담을 단순한 돌담이 아니라, 제주의 정체성과 농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훼손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체득하였음. 또한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앱을 활용해 자료를 기록하고 지도로 시각화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 활용 능력과 참여형 학습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였음.

이러한 교육적 경험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을 넘어, 실제 지역 문제 해결과 연결되는 실천적 학습으로 확장됨.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제주도 내 다른 학교에서도 적용 가능한 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문화유산 보전의 주체로 성장하는 토대가 됨. 결국 이번 연구 제안은 제주연구원이 추진할 교육 연계형 연구 과제로 발전할 경우, 미래세대가 지역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보전 의식을 동시에 내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교육적 효과가 있음.

3) 정책적 파급효과

발담 보전 문제는 전문가나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주민과 미래세대의 인식과 참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본 제안은 청소년의 체험에서 출발했지만, 연구가 진행된다면 주민·학교·연구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회적 보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학생들은 조사를 통해 발담 보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주민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학문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재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임.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면, 공동체 내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이 촉진되고, 마을 단위의 자율적 보전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더 나아가 발담 보전은 단순히 문화유산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관광 자원과 농업 기반을 강화하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지니게 됨. 따라서 본 제안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자원을 보전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효과가 큼.

4) 협력적 연구 모델 제시

제주연구원 차원에서 본 연구 제안이 추진된다면, 발담 보전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지금까지 정책은 전문가 중심의 조사 결과에 의존해왔으나, 청소년의 현장 참여와 주민 목소리가 담긴 데이터는 정책 결정 과정에 새로운 정당성과 공감대를 부여함. 특히 훼손 유형별 원인 분석과 우선 복원 전략 제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경관 보전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며,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리계획에도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램블러 앱과 GIS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행정기관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정책이 단기적 복원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리·교육·활용을 포함한 종합적 보전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따라서 본 제안은 제주연구원이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연구의 모범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며, 발담 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됨.

5. 활용방안

1) 정책적 활용

본 연구 제안이 제주연구원 차원에서 수행될 경우, 발담 보전 정책의 실질적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학생들이 현장에서 기록한 데이터와 이를 확장한 체계적 조사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경관 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며, 특히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보전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음.

지금까지 발담 정책은 주로 전문가 중심의 정량적 조사에 의존해 현장성과 주민 체감도가 부족했지만, 청소년과 주민의 목소리가 포함된 데이터는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과제는 발담 정책이 단기 복원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관리·교육·활용을 포함한 종합 보전 전략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

2) 교육적 활용

이번 활동에서 확인된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며 학습 효과를 체감했다는 점임. 이러한 경험은 향후 도내 중·고등학교 환경 및 지역문화 교육에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학생 소감문, 조사 사진, 지도 자료 등을 교재화할 경우, 교실 수업과 현장 체험을 결합한 실천적 교육이 가능해짐.

또한 제주연구원이 조사 매뉴얼과 교재를 정리해 제공한다면, 교사들이 손쉽게 수업을 기획할 수 있고, 학생들은 지역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며 주인의식을 형성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유산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단순히 학습자가 아니라 문화유산 보전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함.

3) 지역사회 활용

발담 보전은 주민들의 생활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주민 참여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따라서 제안 연구가 진행된다면, 주민 참여형 조사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발담 지킴이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음. 이와 같이 학생과 주민이 함께 훼손 구간을 모니터링하고 간단한 복원 활동을 수행한다면,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연대가 강화됨.

또한 주민들은 발담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고, 학생들은 실천적 보전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내재화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마을 단위의 자율적 관리 활동이 활성화되며, 정책 집행의 수용성과 효율성도 동시에 높아질 수 있음.

결국 주민 참여 확대는 발담 보전을 지역사회 내부의 지속가능한 실천으로 정착시키는 핵심적인 활용 방안임.

4) 디지털 활용

발담 훼손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보전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음. 램블러 앱과 GIS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학생·주민·연구자·행정기관이 동일한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발담 훼손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며, 데이터의 개방성과 투명성 또한 높아짐. 디지털 플랫폼은 교육과도 연계되어, 학생들의 조사 기록이 실제 보전 데이터로 활용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도 쉽게 접근 가능한 참여 창구가 됨.

장기적으로는 제주연구원이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교육, 주민참여를 아우르는 종합 관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제주 발담 보전의 현대적이고 지속가

능한 관리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6. 결론 및 연구의 의의

1) 학생 주도의 문제 제기

본 제안은 제주 대정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발담 현장을 조사하고 훼손 실태를 확인하며 느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이는 단순한 교육 활동을 넘어, 미래세대가 스스로 지역 문화유산의 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또한 청소년의 눈으로 본 문제의식은 기존 연구에서 놓칠 수 있는 현장성과 생생한 관찰을 담고 있어, 연구 과제가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음.

2) 연구기관으로의 연결

서울대 연구진은 단순히 기술적·학문적 조력을 제공했을 뿐, 제안의 주체는 학생들 자신임. 이 과정은 청소년의 체험과 문제 제기가 전문 연구기관의 과제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여줌. 제주연구원이 본 과제를 수행한다면, 학생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학문적·정책적 연구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보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됨.

3) 지역성과 미래세대성의 결합

발담 보전은 지역사회의 과제이자 미래세대가 계승해야 할 책임이기도 함. 본 제안은 학생들의 활동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이를 제주연구원이 이어받아 본격적인 연구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성과 미래세대성이 결합된 연구 모델을 제시함.

이는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육,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임. 따라서 본 과제는 제주연구원이 지역 기반의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됨.

4) 제주연구원의 역할 강화

본 제안이 제주연구원에서 정식 과제로 수행될 경우,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음. 발담 보전 문제는 학술·정책·사회적 파급력을 모두 가진 주제이며, 제주연구원이 이를 주도적으로 다룰 때, 지역 주민과 청소년, 행정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적 보전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이는 제주연구원이 단순한 연구 수행 기관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미래세대 교육까지 연결하는 종합적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됨.